나는 가수다! 네가 정말 가수냐?

(마21:28~32)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는 가수다! 네가 정말 가수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의 제목을 웬만한 분이면 다 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이 제목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이 참 자극적이에요.
왜 자극적이냐 하면, 노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나는 가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공개적으로 '나는 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공헌을 하기 이전에 노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정말 가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당당하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나는 가수다'라고 공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궁금해 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창안한 PD의 머릿속에는 가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가수라고 이 PD는 생각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인터뷰 기사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PD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구나!'
다시 말해,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대중가요계가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 가요라는 거는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청각에 호소를 하는 것이 노래에요, 음악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중음악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비주얼에 신경을 씁니다, 댄스가 가미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자체도 가창력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소리를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말을 구태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비주얼이 안돼요,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음악 장르를 고집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의 사각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어지고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인기와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던 사람들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대중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정말 감격한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음악을 붙들고 정말 자기 인생을 관통해 오는 시절 너무 많은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아내와 뭐 별거를 하게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뚫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 가수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축하! 축하! 축하!

근데 제 자신이 '나는 가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곳입니다.
열여섯 살 때 데뷔를 해서 지금 19세가 된 한 어린 아가씨가 있어요,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에요.
그 아이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으로, '네가 가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 하면, 가정에 아빠의 일이 안 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자기는 할머니 밑에서 큽니다.
그러는 가운데 20번의 오디션에 참여해서 20번이 넘도록 오디션에서 탈락을 합니다, 어린 학생이.

한번 탈락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번 이상 탈락을 한 것에 대해 심리적인 좌절감을 못 느꼈나'라고 사회자가 묻자, 이 어린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오디션이라는 장소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는 저한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번이나 넘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오디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습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부모와 자식 다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때도 노래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가수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그 노래를 붙들고 괴로움의 눈물을 식량 삼아서 지내던 그 사람들도 훌륭합니다마는, 괴로운 시절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음이 슬퍼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 때문에 그 슬픔을 모르고 지나간, 노래의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오디션의 합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오디션의 탈락여부가 관계가 없는 이 어린 아가씨가 '진짜 가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전에 인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노래 때문에 기쁜 사람,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기쁜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 왔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노래를 하느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보다 더 가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깁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라 했더니 '싫소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구절에 마음을 모아 봅니다.
뭐냐 하면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28절에 나오지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라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 하고 있는 걸까요, '싫소이다'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평신도 사역, 교회 직분 받아서 충성 봉사하는 것,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음이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1현실로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 현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 예수님과 연관된 일 천국, 예수님과 연관된 하늘 아버지, 이 예수님 연관성을,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 대상, 사람, 사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줘서 제1현실이 되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거 내가 죽은 거다. 지금 돈 문제가 발생했다, 돈 문제를 돈 문제로 느끼고 걱정하기 이전에 돈 문제보다 더 앞선 현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죽은 것이라는 이 사건이 돈 문제보다 급박하게 느껴지는, 돈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라는, 앞선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 이겁니다.

사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 이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세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역은 내가 해야 될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내 사역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돼요.
그럼 내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1현실로 느낀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제1현실로 믿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건강 문제, 자식 문제가 몰려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건강을 회복하고 자식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더 시급한, 내가 관여해야 될 일인 걸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그래서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얘,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나로 인하여 완전히 기쁘고 완전히 행복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쁨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섭리를 믿고 감사해라.’
이게 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때문에 나 홀로 기뻐하고 나 홀로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기쁨을 채우려고 그러면 나를 만나지 마라 식탁에서 조차도. 밥하고 식탁에 앉기 전에 골방에서 먼저 충분히 혼자 기쁜 다음에 나를 만나고 나도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쁜 다음에 만나자 그러지 않는 한 한집에 살지만 우리 만나지 말자, 자식을 볼 때도 완전히 기쁘기 전엔 만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교인이 많아진다고 기뻐하지 말고, 사례비가 많아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다 기뻐하지 말고, 교인이 없을 때 예배당이 초라할 때 신수비가 조금일 때에 하나님 때문에 이미 벌써 기뻐해라 그게 바로 목사다 이겁니다.
아이유가 오디션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할머니 밑에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나 말거나, 노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노래만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노래만 부를 수 있으면 기뻐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가수인 것처럼 진짜 목회가 잘되거나 안 되거나 이미 벌써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목회가 안 되도 하나님은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은 적게 와도 예수님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완전히 기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하나님 관련 일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겐 세상의 기업을 주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이미 나로 충분히 기뻐해라 충분히 행복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뿐이겠습니까, 짐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짐이 곧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변치 않고 훼손되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격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관련 일, ‘너는 나만으로 기업을 삼고 나만으로 행복해라’ 라는 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그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관계 일로 성전정화에서 드러났듯이 장사를 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에요, 이 사람이.
‘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여러분, 냉장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비즈니스맨이지요.
옷을 팔아서 파는 사람 비즈니스맨 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에요, 배추를 유통을 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 우리가 비즈니스맨의 정의를 피부에 와 닿게 그냥 생활 용어로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자에요, 이익을 남기려는 자고 돈을 벌려는 자가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 관련 업무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네가 대제사장이냐? 물어 봤을 때 아니에요, 나는 뭐에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봐요.
나는 교수다! 정말 네가 교수냐? 누가 교수입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교수고, 그 즐겁게 공부하는 가운데 발견된 새로운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게 교수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맨날 보직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학과의 과장이 되느냐, 제자들 논문 베껴다가 자기 논문으로 써내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교수냐?’라고 물어 봤을 때 아니죠, 교수라는 직위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교수라는 직위 때문에 주어지는 명예와 인기와 월급 이전에 교수일 자체가 기쁜 자가 교수라 이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의사다! 하려 그러면 사람이 병든 모습에 긍휼을 느끼고 그 사람을 진료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게 의사이지 그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지요.

누가 목사입니까?
교인들 앞에 나서기 전에, 예배당을 짓자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리 이미 충분히 기쁜 자가 목사지, 그리고 그렇게 '큰 기쁨을 당신들도 같이 누립시다!'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목사지, 교인이 많아져야 기쁘고 사례비가 높아져야 기쁘고 예배당이 크게 지어져서 사람들이 보고 삐까번쩍한 그 공로를 인정해야 기쁘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맨이지 목사입니까?

둘째 아들이 '싫소이다' 했어요. 이건 뭐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기쁨의 이유를 삼고 살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다 이겁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는 일을 너의 평생의 일로 삼고 살아라, '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싫소이다'한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싫다, 돈으로 기쁘고, 출세로 기쁘고, 인기로 기쁘겠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던 인생을 거기서 함께 죽여 버린 뒤에 이제는 '돈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 일이 형통하건 불통하건 상관없이, 내 몸이 건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손상되지 않고 천국만 훼손되지 않고 주님만 내 옆에 계시다면 십자가만 내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일로 삼는 자들로 바뀐 자들이 둘째 아들이다 이겁니다.

일이 뭐에요?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일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던 나의 삶이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국으로만 완전히 기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맨이 되셔서는 안돼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돈 벌려 했고, 형통하려 했고, 건강하려 한 비즈니스맨들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삶이 죽게 하시고 오직 내 평생의 일은 주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기뻐지는 것을 일로 삼고 살게 해 주시고 몸이 살아 있으므로 일어나야 될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서 성령을 통하여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